

제주지역 고등학교 교육주체의 교육관에 관한 연구

- 교육 가치 및 현실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정 희 복* · 박 종 필**

목 차

I. 서 론	IV. 연구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 방법	

I.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 걸쳐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민주화·자율화가 활발히 추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교육 가치관의 혼란과 교직 사회의 갈등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교실 붕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공교육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현실에 대하여 교육의 시대 변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가피한 진통으로 보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의 위기 상황'으로 보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일차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상황에서 빚어진 결과인 동시에 가치관과 교육관이 혼란을 면치 못하는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보여 지고 있다(조흥기, 1990).

'교육은 올바른 인간을 기르는 활동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의미하고, '교육을 잘 받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진다.'는 생각은 '교육 현실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이 두 측면의 생각은 개인의 내부에서 공존하거나 혹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의 '생각'이 '행동'을 이끄는 힘이라고 본다면, 가치관과 지각이 다를 경우 행동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이인호, 1981). 이러한 개인의 갈등이나 혼란뿐만 아니라 교육주체,

* 제주여자고등학교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단체, 교육기관 서로 간에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안정된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국민들이 건전한 가치관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이듯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교육관 정립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은 학교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은 물론 교육 문제에 대한 시각과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교육성과를 평가하는 관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 교사라 할지라도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교육 활동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다(박운도, 1990). 교육 관련자들의 교육관이 서로 이해될 수 없을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거나 상호 대립되는 정도에 이르면 커다란 갈등 요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교육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되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 함께 교육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 때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의 교육관이 어느 면에서 일치하고 어느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할 수 있으면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교육의 제반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학부모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교사의 사기 진작과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제주 지역 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 가치 및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 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교육 활동의 지향점 설정에 기여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육주체의 개념

교육주체의 개념은 크게 협의의 관점과 광의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협의의 관점에 따르면, 교육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객체에게 교육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협의의 관점에서 말하는 교육의 주체는 흔히 말하는 교육의 3요소, 즉 교육자, 학습자, 교육 내용 중 교육자 혹은 교사를 의미한다(남궁용권, 1997: 55).

이에 반해 광의의 관점에서는 아동, 학생에게 주체성을 초점을 두고 있다. 즉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아동, 학생 자신의 욕구, 희망, 흥미 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이는 "교육이란 이상적인 인간 형성의 과정이며 보다 나은 삶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문화적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이 타고난 잠재적 가능성을 최선의 교육 환경과 교육 방법을 작용시켜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인간으로 신장시키는 일이다."이라는 교육의 정의와도 일맥상통하는 관점이다(남궁용권, 1997: 28).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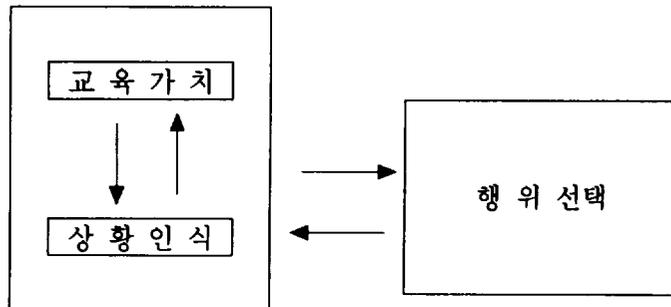
서 광의의 관점에서 교육의 주체는 인간 형성의 주체는 학생이며, '배우는'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사·학부모는 물론 학습자인 학생도 넓은 의미에서 교육주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교육주체는 이러한 광의의 관점에 토대를 두고 있다.

2. '교육관'의 개념

교육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교육관의 개념적 포괄성과 모호성으로 명료화·구체화하지 못하고 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교육관 유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학자들에 따라 교육관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박준희(1975)는 교육관을 「교육이라는 특별한 작용과 행위를 지배하는 가치관」이라고 정의하여 교육관을 가치관의 하위 개념으로 다루었으며 교육관을 교육 가치관, 교육 목적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종재(1980)는 교육관을 「교육 현실에 대한 주관적 의미구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관적인 의미구성은 「무엇이 보다 가치로운가?」에 관한 주관적 가치 의식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황 인식이란 ① 교육에 비추어진 상(象) ②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 ③ 상황과 실제에 대한 평가 의식 ④ 교육 상황에 대처하는 전략 등을 말한다. 개인은 가치와 상황 인식의 상호 작용의 결과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도표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 교육관의 개념

출처: 조흥기(1990), 교원의 교육관·교직관 조사 연구. 홍익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0

이러한 교육관의 개념과 연관하여 교육관에는 가치론적 측면과 인식론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치론적 측면에서는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및 기타 교육에 관련된 분야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고,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교육의 제현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다(배천웅 외, 1986).

이돈희(1985)는 교육관을 「교육 행위의 전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 선택과 판단의 기준 체계」라고 정의하여 교육관에서 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방향 선택에 있어서의 가치 의식

과 신념으로서 판단의 기준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그는 교육관은 적어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제도적 교육의 주체인 국가가 추구하는 교육관으로서 그것은 흔히 '교육 이념'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제도적 교육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전개할 때 그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어떤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교육의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실천하는 교원이나 교육 이론가의 교육관으로서 고도의 이론적 체계를 가졌을 때 '교육 사상'이라 불리기도 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일반 대중의 '통속적 교육관'이다.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이나 교육을 받고자 하는 피교육자들이 교육에 대하여 가지는 관점이나 기대 등 교육적 선택이나 판단의 과정에 작용하는 신념이라 할 수 있다.

3. 교육관 연구의 접근

교육관의 연구는 크게 '역사·철학적인 연구'와 '경험 과학적인 연구'로 나누어진다. '역사·철학적 연구'는 대체로 전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교육관과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경험 과학적 연구'는 현재 사회 일반이 지니고 있는 교육관의 파악과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배천웅 외, 1986).

1) 역사적·철학적 접근

역사적·철학적 교육관 연구의 접근에 의하면 한국인은 교육의 내면적 가치보다는 교육의 결과로 얻은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의 수단으로서 교육을 생각하게 되고 교육 내용의 체제나 원칙은 무시한 채 개인의 생활, 즉 가족의 행복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중시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또한 지성(知性)의 계발보다는 도덕성, 품성을 중요시하게 되었으며 개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기보다 집단적이고 보수적인 행동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역사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진 한국인의 교육관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역사적 고찰을 통해 파악된 전통적 교육관을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는 교육적 좌표를 설정하거나 교육적 전통을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2) 경험·과학적 접근

인간의 의식이 사회 집단으로 나타날 때 사회적 의식으로 발전한다. 사회의 가치관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사회적 사실의 실재 현상을 밝히는데 초점을 둔다. 개인의 가치관이나 교육관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의 동기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역으로 사회적 실재로 존재하는 가치관이나 교육관은 하나의 문화 가치로서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가치관은 사회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어느 사회나 단일의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는 정적(靜的)이라기보다는 변화의 과정이며 새로운 가치관이 발생하거나 외부로부터 이입(移入)되어 지배적 가치관(중핵적 가치관)과 변동적 가치관(주변적 가치관)이 혼재하

고 있다(이돈희, 1985).

가치관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주로 관심을 두는 것은 혼재된 가치관의 혼란이나 그릇된 교육관 등을 지적하지만 가치관이나 교육관 개념 자체에 대하여 통일적인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분명한 의견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제주지역 교사·학부모·학생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 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건전한 교육관 정립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의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및 통계 자료 분석에 의존한 양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교사는 제주시내 12개 고등학교(일반계 8개교, 실업계 4개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81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4부를 제외하고 477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학부모는 제주시내 고등학교 3개 학년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부하고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519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51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학생은 제주시내 5개 고등학교(일반계 3개교, 실업계 2개교) 학년별 1개 반을 선정하여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506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0부를 제외하고 496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 도구로 사용한 설문지는 조흥기(1990)와 박윤도(1990)를 중심으로 하여 선행 연구 및 문헌을 통해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가치면'과 '학교 교육의 운영면',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 등 세 가지 하위 영역에 걸쳐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1. 교육에 대한 가치면

1) 인생의 가치관

'학생이 장차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대한 교육주체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관

문항 주체	떳떳하고 신뢰받으며 사는 것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	화목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
학생 n=496	154 31.0%	70 14.1%	92 18.5%	167 33.7%
학부모 n=512	236 46.1%	21 4.1%	127 24.8%	125 24.4%
교사 n=477	244 51.2%	9 1.9%	156 32.7%	64 13.4%
χ^2		79.29 ***		

*** p<.001

위의 〈표 IV-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부모와 교사들은 '떳떳하고 신뢰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학생은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과 '떳떳하고 신뢰 받으며 사는 것'을, 학부모와 교사는 '떳떳하고 신뢰 받으며 사는 것'과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바람직한 인간상

'학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인물이 되기를 가장 바라는가'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2〉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 사회에 나갔을 때의 바람직한 인간상

문항 주체	전공분야에 실력이 뛰어난 인물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도덕적 인물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의지적인 인물	친화력 있고 대인관계가 좋은 인물
학생 n=496	189 38.1%	70 14.1%	54 10.9%	167 33.7%
학부모 n=512	140 27.3%	79 15.4%	111 21.7%	176 34.4%
교사 n=477	39 8.2%	255 53.5%	97 20.3%	80 16.8%
χ^2		331.84 ***		

*** p<.001

앞의 <표 IV-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 바람직한 인물에 대하여 교육주체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p<.001). 교사들의 경우에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도덕적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3.5%로 가장 높았고,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친화력 있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회적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생들은 '전공 분야 실력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대학 진학 목적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려는 목적'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3> 대학 진학의 목적

문항 주체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회 생활을 해나감	학문을 깊이 있게 탐구함	전문적인 기술이나 재능을 배양함	교양과 경험을 쌓고 인격을 형성함
학생 n=496	268 54.0%	30 6.0%	106 21.4%	82 16.5%
학부모 n=512	321 62.7%	18 3.5%	84 16.4%	84 16.4%
교사 n=477	169 35.4%	31 6.5%	117 24.5%	155 32.5%
χ^2		91.99***		

*** p<.001

위의 <표 IV-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에 대해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모두 대학 진학의 주된 목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과반수 이상이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 및 학부모와는 달리 교사들은 '교양과 경험을 쌓고 인격을 형성함',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재능을 배양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즉, 학생과 학부모는 안정된 직업과 사회생활에 주된 초점을 두는 반면, 교사들은 교양과 인격 형성 및 전문성 신장 등 비교적 전반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학 진학을 할 때 고려 사항

'학생이 진학을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4>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4〉 대학 진학을 할 때 고려 사항

문항 주체	대학의 수준	장래성 있는 학과	적성에 맞는 전공	합격 가능성
학생 n=496	40 8.1%	135 27.2%	296 59.7%	20 4.0%
학부모 n=512	23 4.5%	183 35.7%	300 58.6%	6 1.2%
교사 n=477	15 3.1%	103 21.6%	340 71.3%	18 3.8%
χ^2		53.19***		

*** p<.001

앞의 〈표 IV-4〉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이 대학 진학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학생, 학부모 및 교사 모두 적성에 맞는 전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주체들 모두 '장래성 있는 학과'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 수준'이나 '합격 가능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바람직한 수업의 형태

'바람직한 수업 형태'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5〉과 같다.

〈표 IV-5〉 바람직한 수업의 형태

문항 주체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수업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수업	학습자료나 기자재를 잘 활용하는 수업	학생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수업
학생 n=496	168 34.1%	270 54.4%	14 2.8%	29 5.8%
학부모 n=512	107 20.9%	293 57.2%	51 10.0%	56 10.9%
교사 n=477	407 27.4%	787 53.0%	76 5.1%	185 12.5%
χ^2		118.92***		

*** p<.001

위의 〈표 IV-5〉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바람직한 수업 형태'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모두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수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학생 54.4%, 학부모 57.2%, 교사 47.0%). 다음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되는 수업'이 학생 34.1%, 학부모 20.9%, 교사 27.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6) 바람직한 교사상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6> 바람직한 교사상

주체 \ 문항	담당 과목의 실력이 뛰어나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쳐 줌	교육자로서 깨끗한 신념을 갖고 생활함	학생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줌
학생 n=496	80 16.1%	140 28.2%	67 13.5%	199 40.1%
학부모 n=512	61 11.9%	119 23.2%	87 17.0%	243 47.5%
교사 n=477	20 4.2%	144 30.2%	94 19.7%	212 44.4%
χ^2		53.86***		

*** p<.001

위의 <표 IV-6>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해서는 교육주체들 간에 비슷한 생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모두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학생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 주는 선생님'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치는 선생님', '교육자로서 깨끗한 신념을 갖고 생활하는 선생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담당 과목에 실력이 뛰어나신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16.1%), 교사들의 경우에는 4.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

1) 수준별 수업의 효과

'수준별 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7>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7> 수준별 수업의 효과

주체 \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n=496	36 7.3%	106 21.4%	205 41.3%	93 18.8%	56 11.3%
학부모 n=512	67 13.1%	164 32.0%	192 37.5%	72 14.1%	16 3.1%
교사 n=477	36 7.5%	154 32.3%	194 40.7%	74 15.5%	18 3.8%
χ^2		64.50***			

*** $p < .001$

앞의 <표 IV-7>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이 28.7%, 학부모가 45.1%, 그리고 교사가 39.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은 학생이 30.1%, 학부모와 교사는 각각 17.2%와 19.2%로 나타났다. 즉,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비교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교수-학습 방법 개선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노력'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8>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노력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n=496	27 5.4%	91 18.3%	245 49.4%	92 18.5%	37 7.5%
학부모 n=512	22 4.3%	146 28.5%	249 48.6%	70 13.7%	16 3.1%
교사 n=477	25 5.2%	251 52.6%	178 37.3%	19 4.0%	0
χ^2		186.63***			

*** $p < .001$

위의 <표 IV-8>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노력'에 대해서 교육주체 간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의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은 학생이 26.0%, 학부모가 1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의 경우에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과외 수강의 필요성

'과외 수강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9>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표 <표 IV-9>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과외 수강이 필요하다는 반응 보다는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68.7%가 과외 수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과외 수강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과외 수강의 필요성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n=496	35 7.1%	81 16.3%	132 26.6%	142 28.6%	104 21.0%
학부모 n=512	18 3.5%	74 14.5%	137 26.8%	165 32.2%	112 21.9%
교사 n=477	5 1.0%	37 7.8%	100 21.0%	240 50.3%	88 18.4%
χ^2		82.26***			

*** p<.001

4) 체벌의 필요성

'학생 지도를 위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0>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0> 체벌의 필요성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n=496	68 13.7%	154 31.0%	191 38.5%	49 9.9%	30 6.0%
학부모 n=512	70 13.7%	203 39.6%	163 31.8%	51 10.0%	13 2.5%
교사 n=477	67 14.0%	225 47.2%	121 25.4%	55 11.5%	8 1.7%
χ^2		56.06***			

*** p<.001

위의 <표 IV-10>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생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에는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학생이 잘못했을 때 바른 지도를 위해서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 61.2%, 학부모 53.3%, 학생 44.7%로 교육주체 간에 체벌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사들은 체벌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체벌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1>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 운영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n=496	47 9.5%	146 29.4%	212 42.7%	68 13.7%	22 4.4%
학부모 n=512	25 4.9%	144 28.1%	270 52.7%	47 9.2%	13 2.5%
교사 n=477	19 4.0%	180 37.7%	201 42.1%	66 13.8%	10 2.1%
χ^2		58.95***			

*** p<.001

위의 <표 IV-11>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학생 38.9%와 학부모 3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부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6) 학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

'학교의 학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V-12>에 제시되어 있다..

다음의 <표 IV-12>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교과과정이나 부서운영, 행사 등 학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학사 운영에 대해 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가 41.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부모 35.8%, 학생 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학사 운영에 대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이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12〉 학사 운영에 대한 만족도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n=496	24 4.8%	98 19.8%	249 50.2%	82 16.5%	42 8.5%
학부모 n=512	23 4.5%	160 31.3%	262 51.2%	45 8.8%	9 1.8%
교사 n=477	15 3.1%	185 38.8%	219 45.9%	51 10.7%	5 1.0%
χ^2		106.53***			

*** p<.001

7) 대학입학 전형 제도

최근 제시된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하는 대입제도'에 대하여 교육주체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IV-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13〉 대학입학 전형 제도 만족도

문항 주체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 n=496	35 7.1%	73 14.7%	195 39.3%	87 17.5%	103 20.8%
학부모 n=512	23 4.5%	94 18.4%	201 39.3%	125 24.4%	61 11.9%
교사 n=477	31 6.5%	144 30.2%	176 36.9%	85 17.8%	41 8.6%
χ^2		77.89***			

*** p<.001

위의 〈표 IV-13〉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하는 대입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가 36.7%, 학부모가 22.9%, 학생이 2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이 38.3%, 학부모가 36.3%로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학생과 학부모들은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제주지역 교사·학부모·학생들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인식 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여 건전한 교육관 정립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의 지향점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선행 연구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제작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교육관의 영역을 '교육에 대한 가치면' 및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대상 중 교사는 제주 시내 12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477명을 대상으로 하여 하였고, 학생은 제주 시내 5개 고등학교 학년별 1개 반씩을 선정하여 49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학부모는 제주 시내 거주하는 학부모 512명을 대상으로 총 1485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을 '교육에 대한 가치면'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가정이 화목하고 안정되게 사는 것'과 '떳떳하고 신뢰 받으며 사는 것'을, 학부모와 교사는 '떳떳하고 신뢰 받으며 사는 것'과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다.

둘째, 바람직한 인간상에 대해서, 학생은 '전공 분야 실력이 뛰어난 인물'을, 학부모는 '친화력 있고 대인관계가 좋은 사회적 인물'을, 교사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도덕적 인물'을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보고 있다.

셋째,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들의 경우에는 '교양과 경험을 쌓고 인격을 형성함',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재능을 배양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생이 대학 진학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모두 '적성에 맞는 전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장래성 있는 학과'를 중요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바람직한 수업 형태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수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수업'이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바람직한 교사상에 대해서, 교육주체들은 비슷한 생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모두 바람직한 교사상으로 '학생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를 가르

치는 선생님', '교육자로서 깨끗한 신념을 갖고 생활하는 선생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담당 과목에 실력이 뛰어나신 선생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을 '교육 현실에 대한 인식면'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이 28.7%, 학부모가 45.1%, 그리고 교사가 39.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준별 수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은 학생이 30.1%, 학부모와 교사는 각각 17.2%와 19.2%로 나타났다.

둘째,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들의 교수-학습 방법 개선 노력'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의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어느 정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비율은 학생이 26.0%, 학부모가 1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의 경우에는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과의 수강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과외 수강이 필요하다는 반응보다는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68.7%가 과외 수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과외 수강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생지도를 위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학부모와 교사의 경우에는 체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체벌의 필요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체벌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학생 38.9%와 학부모 3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부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학교 운영에 교육주체들, 특히 학부모와 학생들은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의 학사 운영 만족도'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모두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학사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가 41.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학부모 35.8%, 학생 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는 낮고, 이에 반해 불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하는 상대 평가 방식의 대입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가 36.7%, 학부모가 22.9%, 학생이 21.8%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이 38.3%, 학부모가 36.3%로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학생과 학부모들은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하는 2008학년도 대입제

도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결 론

교육관에 관한 선행 연구 및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에 대해서, 인생의 가치관이나 올바른 심성 배양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교사와 학부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님의 모범적인 생활과 가정교육', '좋은 친구나 선후배와의 건전한 활동', '효과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효과적인 인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이상적인 교사상으로, '학생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대해주는 선생님'이라고 교육주체들은 인식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대하여 신뢰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와 대학 진학에 대해서, 교육주체들이 바라는 '적성에 맞고 장래성 있는 학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특기·소질 계발과 학력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과외 수강의 필요하다는 인식이 교사에 비해 학생과 학부모가 높게 나타나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 수준별 수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동일한 사항에 대해 교육주체들 간의 의견차이 및 의견 수렴이 잘 되지 않는다는 반응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부모 및 교사들의 의견과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 따라서 학교 운영 및 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각 주체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살펴 본 것을 종합해 볼 때, 교육주체들은 올바른 심성을 기르는 '인성교육'과 학력 향상이나 특기·소질 계발을 통한 '진로·진학 교육'에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주체 간에 '교육에 대한 가치관, 학교 교육의 운영, 교육 현실 문제'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 있다. 바람직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의 교육관이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주체들은 '혼과 혼의 대화, 정성과 정성의 호흡, 정열과 정열의 만남'으로 가치관의 이질성과 대립을 줄이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개방적 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대 변화에 대한 방향 감각을 기르고 교육에 대한 신념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기수(1998). 인간학적 교사론. 서울: 세종출판사.
- 남궁용권(1997). 신교육학개론. 서울: 양서원
- 김경갑(1987).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구(2000). 교사의 교육관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의(1988).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관 비교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현 외(1981). 학교와 지역사회. 서울: 교육출판사.
- 박준희(1975). 한국인의 교육관. 서울: 실학사.
- 배천웅 외(1976). 한국인의 교육관 분석. 서울: 정민사.
- 박윤도(1990). 교사·학부모·학생의 교육관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천석(1973). 교육철학신강. 서울: 교학사.
- 이돈희(1985). 교육관의 변화와 과제. 서울: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 이인호(1980). 교육관의 유형·갈등 및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재 외(1980). 한국인의 교육관.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정범모(1972). 가치관과 교육. 서울: 배영사.
- 정우현(1988). 교사론. 서울: 배영사.
- 정원식 외(1983). 교직과 사도. 서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 정재걸(2001). 만두모형의 교육관. 서울: 한국교육신문사.
- 정현중(1993). 학부모와 교사의 교육관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흥기(1990). 교원의 교육관·교직관 조사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영숙(1983). 사립학교의 건학정신과 교육관에 관한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교육학회(1998).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 Turner, J. H. (1974). The structure of sociological theory. London: The Dorsey Press
- Singleton, J. and Lee, C. J. (1979). Social constructions of schooling: Competing images in Korean education. Academy of Korean Studies.
- Schutz, S.(1973). Collected papere I : The problem of social reality. Netherlands : Martinus Mijho
- Parsons, T.(1962).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and Row.